

## 송백(松栢)에 대한 문헌연구 - 소나무 잣나무 측백나무를 중심으로

김종덕\* · 송일병\* · 고병희\*

### Abstract

## The bibliographical Investigation of songback(松栢)

Kim Jong-Dug\* · Song Il-byung\* · Koh Byung-hee\*\*

\* Dep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Hee Univ.

\*\*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In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pine trees have been used as medicines for Taeyangin and a pine-nuts tree for Taemin. However, there has been some misunderstandings in interpretation as the Koreans referred to back(栢) as pine-nuts tree as well as cheukback(측백) tree. Also, we have disputed over how to translate songback(松栢). Regarding this dispute, I came to the following conclusion based on a research with exactitude.

1. Songja (松子), Songjain(松子仁), Songsil(松實) means Pinus Koraiensis(갯), not a pine cone.
2. Backja(栢子) is a fruit of Cheukback(측백) tree, not of a pinus koraiensis(갯).
3. Some part of 'yulsunjun(列仙傳)' quoted to explain pine-nuts in Bonchogangmok(本草綱目) was misrepresented.
4. In regard to the record that a court lady of Chin(秦) Dynasty lived for hundreds of years, Galhong(葛洪) made a mistake by saying that she took pine needles and a Pinus Koraiensis in 'Pobakja(抱朴子)', while saying that she took pine needles and leaves of cheukback(측백) tree in 'Joohoobigeupbang(肘後備急方)'. Also He made a mistake by saying that took pine needles and leaves of cheukback(측백) tree in Bonchogangmok(本草綱目).
5. Songback(松栢), which was referred to in the Analects of Confucius(論語) and the historical annals(史記), should be understood as an old pine tree with a hard quality of the lumber and evergreen, rather than 'a pine tree and a pine-nuts tree' or 'a pine tree and cheukback(측백) tree'.
6. Although 'Songback(松栢)' mentioned in a book on medicine were sometimes considered as 'a pine-nuts tree' and 'cheukback(측백) tree' or 'a pine tree and cheukback(측백) tree,' it should be regarded as an old pine tree in most cases.

Key Words : 소나무(松) 잣나무(海松子) 측백나무 송백(松栢)

\*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과 \*\* 한국한의학 연구원  
교신처 : 김종덕 주소) 서울시 동작구 사당2동 144-7 사당한의원 전화) 02-599-1772  
E-mail) sa-dang@hanmail.net

## I. 서론

현재 소나무는 송(松), 측백나무는 백(栢), 잣나무는 해송(海松) 또는 백(栢)으로 표기되고 있는데, 문헌에 따라 백(栢)이 측백나무 또는 잣나무로 각각 해석되고 있어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리고 송백(松栢)을 단일 식물인 노송의 의미로 보아야하는지, 소나무와 측백나무로 보아야하는지, 소나무와 잣나무로 보아야하는지 논란의 소지가 있다. 또한 송자(松子)를 솔방울로 볼 것이냐, 아니면 잣으로 보아야 하는지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체질별 약재를 달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는 사상의학에서는 소나무[松節, 松葉, 松粉]는 태양인의 약재로, 측백나무[栢子仁]와 잣나무[海松子]는 태음인의 약재로 달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느 식물을 지칭하여 서술이 되었는지가 중요하게 된다. 이에 송(松)과 백(栢)이 사용된 고문헌을 정확히 고증하여 정반대 성질의 약재를 잘못 사용하는 오류를 바로잡고자 한다.

현재 일부에서는 잣나무는 栢, 측백나무는 柏으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한문사전<sup>1)</sup>에서는 같은 글자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본고에는 栢과 柏을 같은 글자로 인식하여 栢으로 통일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어사전이라 할 수 있는 『訓蒙字會』(1527)에 측백나무를 栢으로 표기되었기에<sup>2)</sup> 이를 따랐다.

## II. 본론

松과 栢의 한문이 만들어진 이유에 대하여

'소나무와 측백나무는 모든 나무의 으뜸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소나무[松]은 공작[公], 측백나무[栢]는 백작[伯]에 비유하여 만들어진 단어이다.'<sup>3)</sup>라고 이해하고 있었다. 예전부터 소나무와 측백나무는 윤택하고 겨울이 되어도 시들지 않은 특징이 있어 매우 좋고, 이를 먹고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였기에<sup>4)</sup> 이에 대한 정확한 문헌고증이 필요하다.

(1) 소나무와 잣나무를 혼동하여 사용한 흔적이시진(李時珍, 1518~1593)은 소송(蘇頌, 1019~1101)의 글을 인용하면서 소나무의 잎이 2개이고, 잣나무의 잎이 5개이기 때문에 서로 구분이 확연함에도 불구하고, 소나무의 일종으로만 이해하여 잣나무에 해당되는 문장을 소나무를 설명하는데 사용하고 있다.<sup>5)</sup> 이는 예전의 본초가들이 소나무와 잣나무를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고 사용했던 흔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시진도 잘못된 용된 것을 인식하였는지 '잎이 3개인 것은 팔자송(栝子松)이고 5개인 것은 송자송(松子松)이다. 씨앗의 크기는 측백나무 열매[栢子]정도이다. 요동(遼東) 지역과 운남(雲南) 지역에서 나온 것은 크기가 파두(巴豆) 정도로 사람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잣[海松子]으로 보아야한다.'<sup>6)</sup>라고 소나무와 잣을 정확하게 분류하여 다시 설명하게 된다. 여기에서 말하는 송자송(松子松)은 잣나무를 의미한다.

(2) 송자(松子)와 송자인(松子仁)은 소나무의 열매가 아니라 잣을 의미한다.

1) 民衆書館編輯局, 『漢韓大字典』, 民衆書林, 2002  
2) 崔世珍, 『訓蒙字會』, 「木樹」, 栢 즉빅 빅 俗呼 匾松  
3) 李時珍, 『本草綱目』, 「松」, 時珍曰 按王安石字說云 松柏爲百木之長 松猶公也 栢猶伯也 故松從公 栢從白  
4) 李時珍, 『本草綱目』, 「松」, 弘景曰 松柏皆有脂潤 凌冬不凋 理爲佳物 服食多用 但人多輕忽之耳  
5) 李時珍, 『本草綱目』, 「松」, 頌曰 松處處有之 其葉有兩鬣五鬣七鬣 歲久則實繁 中原雖有不及 塞上者佳好也 松脂以通明如 蕪陸香類者爲勝  
6) 李時珍, 『本草綱目』, 「松」, 時珍曰 松樹礫何修聳多節 其皮粗厚有鱗形 其葉後凋 二三月抽糞生花 長四五寸 采其花蕊爲松 黃 結實狀如猪心 疊成鱗砌 秋老則子長鱗裂 然葉有二針三針五針之別 三針者爲栝子松 五針者爲松子松 其子大如栢子 惟 遼海及雲南者 子大如巴豆可食 謂之海松子 詳見果部

일부 한문사전에서 송자(松子)를 솔방울로 번역하고 있으나<sup>7)</sup> 이는 잣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이시진도 송(宋)나라 때 본초학자인 구종석(寇宗奭)의 잣을 설명하는 '송자(松子)는 바다 건너 동쪽에서 많이 난다. 중국의 관서(關西, 함곡관 서쪽)에도 있지만 크기가 작고 맛이 떨어진다.'<sup>8)</sup>라는 문장을 소나무를 설명하는 항목에 인용하는 오류를 범하고 만다. 여기에 나오는 송자(松子)는 잣으로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바다건너 동쪽인 우리나라에서 잣이 많이 나고 중국에서 나오는 잣은 질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이다. 송자(松子)를 솔방울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는 타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솔방울은 식용으로 먹지는 못하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전역에 걸쳐 나오기 때문에 위의 문장에 나오는 송자(松子)를 솔방울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備急千金要方』<sup>9)</sup>, 『世醫得效方』<sup>10)</sup> 등에 송자(松子)를 복용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음력 7월에 채취하며 매일 3회씩 복용하면 100일 만에 몸이 가벼워지고 200일 만에 500리를 걸을 수 있으며 곡식을 끊고 신선이 될 수 있다. 갈증이 날 때 송진과 같이 먹을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 나오는 송자(松子)는 잣을 설명하는 『本草綱目』의 문장<sup>11)</sup>과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도 잣으로 보아야 한다.

『外臺秘要』<sup>12)</sup>, 『普濟方』<sup>13)</sup> 등에 스스로 목을 매 숨이 막힌 사람에게 송자(松子)의 기름을 먹임으로서 사람을 살리는 방법이 나온다. 여기에 나오는 송자(松子)는 솔방울이 아닌 잣으로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잣에는 기름이 나오지만 솔방울에는 기름이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송자인(松子仁)은 당연히 잣을 의미하는 단어가 되는 것이다.

### (3) 송실(松實)은 솔방울일까? 잣일까?

송실(松實)을 소나무의 솔방울로 보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잣나무의 잣으로 보아야 할 것이냐가 문제가 된다. 『肘後備急方』<sup>14)</sup>, 『本草綱目』<sup>15)</sup>, 『欽定授時通考』<sup>16)</sup> 등에서는 소나무에 설명되어진 송실(松實)을 잣으로 인식하여 송자(松子)와 송실(松實)이 서로 같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證類本草』<sup>17)</sup>, 『神農本草經疏』<sup>18)</sup>, 『東醫寶鑑』<sup>19)</sup> 등에서는 소나무를 설명하는

7) 民衆書館編輯局, 『漢碑大字典』, 民衆書林, 2002  
 8) 李時珍, 『本草綱目』, 「松」, 宗奭曰 松實一如蒲黃 但味差淡 松子多海東來 今關右亦有 但細小味薄也  
 9) 孫思邈, 『備急千金要方』, 「餌松子方」, 七月七日採 松子過時即落 不可得治 服方寸匕日三四 一云一服三合 百日身輕 二百日行五百里 絕穀服昇仙 渴飲水亦可和脂服之 若丸如梧桐子大 服十丸  
 10) 危亦林, 『世醫得效方』, 「餌松子方」, 七月七日採 松子過時即落 不可得治 服方寸匕日三四 一云一服三合 百日身輕 二百日行五百里 絕穀服昇仙 渴飲水亦可和脂服之 若圓如梧桐子大 服十圓  
 11) 李時珍, 『本草綱目』, 「海松子」, 服松子法 七月取松實 過時即落難收也 去木皮 搗如膏收之 每服鷄子大 酒調下 日三服 百日身輕 三百日行五百里 絕穀久服神仙 渴則飲水 亦可以煉過松脂同服之 (聖惠方)  
 12) 王燾, 『外臺秘要』, 「范汪療自縊死方」, 以松子油內口中 令得入咽中 則便活  
 13) 朱橚, 『普濟方』, 「治自縊死」, 右以松子油納口中 令得入咽中 便活 又治溺死 出聖濟總錄  
 14) 葛洪, 『肘後備急方』, 「聖惠方絕穀昇仙不食法」, 取松實搗爲膏 酒調下三錢 日三則不飢 渴飲水勿食他物 百日身輕 日行五百里  
 15) 李時珍, 『本草綱目』, 「松」, 松實見果部  
 李時珍, 『本草綱目』, 「海松子」, 服松子法 七月取松實 過時即落難收也 去木皮 搗如膏收之 每服鷄子大 酒調下 日三服 百日身輕 三百日行五百里 絕穀久服神仙 渴則飲水 亦可以煉過松脂同服之 (聖惠方)  
 李時珍, 『本草綱目』, 「海松子」, 時珍曰 服食家用松子皆海松子 自中國松子肌細力薄 只可入藥耳 按列仙傳云 偃佺好食松實 體毛數寸 走及奔馬 又犢子少在黑山 食松子茯苓 壽數百歲 又赤松子好食松實 天門冬石脂 齒落更生 髮落更出 莫知所終 皆指此松子也  
 16) 鄂爾泰, 『欽定授時通考』, 「松子」, 松子本草云 松實狀如豬心 疊成鱗砌 秋老則子長鱗裂 惟遼海及雲南者 謂之海松子 馬志曰 海松子狀如小栗三角 其中仁香美 當果食之 亦代麻腐食之 與中國松子不同 蘇頌曰 松歲久則實繁 中原雖有 小而不及 塞上者 佳好也 吳瑞曰 松子有南松北松華陰松 形小殼薄有香 新羅者 肉甚香美  
 17) 唐慎微, 『證類本草』, 「松脂」, 松實 味苦溫無毒 主風痺寒氣 虛羸少氣 補不足 九月採陰乾

문장에 송실(松實)을 설명하고 또한 별도로 잣[海松子]을 설명하고 있어 송실(松實)이 솔방울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잣을 의미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송실(松實)을 서술하는데 있어서 왜 이런 오해의 소지를 남겨놓았을까? 이는 이미 진(晉)나라 편찬된 『南方本草狀』에 잣[海松子]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것<sup>20</sup>으로 보아 소나무와 잣나무를 당시부터 이미 구분하여 사용하였지만, 잣나무를 넓은 의미로 소나무의 일종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오류로 보인다.

(4) 栢子是 楸백나무의 열매(栢子仁)이지 잣이 아니다.

우리나라 한문사전에서 백(栢)을 찾아보면 楸백나무와 잣나무라는 뜻이 모두 있다. 따라서 楸백나무의 열매의 의미인 백자(栢子)를 잣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왔다. 『山林經濟』(1715)같은 책에서도 '잣을 연고같이 썰어서 계란 크기로 환(丸)을 지어 술에 타서 하루 세 번씩 먹는다.<sup>21)</sup>'라고 설명하면서 잣[海松子]과 백자(栢子)가 서로 같은 것으로 보았다. 이렇게 잘못 이해하게 된 까닭은 중국에서는 잣나무가 잘 자라지 않기 때문에 굳이 잣나무에 해당되는 단어를 만들지 않고 잣나무를 소나무의 일종으로 생각하였다. 5개의

잎이 모여 한 다발을 만들기 때문에 오엽송(五葉松) 또는 오렵송(五齧松)이라 하는 잣나무는 열매[果]에서 기름[油]이 나오기 때문에 유송(油松) 또는 과송(果松)이라 하고<sup>22)</sup>, 재질이 좋으며 연한 홍색을 띄므로 홍송(紅松)이라고도 하며, 바다[海] 건너 신라(新羅)의 잣이 우수하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해송자(海松子) 또는 신라송자(新羅松子)<sup>23)</sup>라 하기도 하였다. 근대에 와서도 잣나무를 영어로 Korean Pine이라 하고 학명으로도 한국산임을 강조하는 *pinus koraiensis*라 하니 잣나무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소나무류로 인식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잣나무를 의미하는 단어로 백(栢)을 사용함으로써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백(栢)을 해석하는데 서로 오해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楸백나무의 열매를 의미하는 백자(栢子)를 우리나라에서는 잣으로 오해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최초의 국어사전인 『訓蒙字會』(1527)에 백(栢)을 楸백나무의 의미만 있다<sup>24)</sup>고 하여 언제부터 백(栢)을 잣나무로 사용하였는지에 대하여서는 좀더 연구가 필요하다.

예전에도 楸백나무의 열매를 의미하는 백자(栢子)를 우리나라에서 잣으로 잘못 이해하였기 때문에 나타나는 오류를 이덕무(李德懋, 1741~1793)<sup>25)</sup>와 서유구(徐有榘, 1764~

唐慎微, 『證類本草』, 「海松子」, 味甘小溫無毒 主骨節風 頭眩 去死肌變白 散水氣 潤五藏 不飢 生新羅如小栗三角 其中仁香美 東夷食之當果 與中土松子不同. 今附臣禹錫等 謹按日華子云 松子逐風痺寒氣 虛羸少氣 補不足 潤皮膚 肥五藏 東人以代麻腐食用

18) 繆希雍, 『神農本草經疏』, 「松脂」, 松實 味甘氣溫 性平和無毒 本經言苦者誤也 以其屬陽 故亦主風痺寒氣 其主虛羸少氣 補不足者 精不足 補之以味甘 能益血 是已形不足 溫之以氣溫 能和氣 是已服餌 延年輕身不饑 惟此足以當之 然亦久服 乃可責效耳

繆希雍, 『神農本草經疏』, 「海松子」, 味甘小溫無毒 主骨節風 眩眩 去死肌髮白 散水氣 潤五藏 不飢 生新羅. 疏○海松子氣味香美甘溫 甘溫助陽氣 而通經 則骨節中風水氣 及因風頭眩 死肌自除矣 氣溫屬陽 味甘補血 血氣充足 則五臟自潤 髮白不飢所由來矣 仙方服食多餌此物 故能延年輕身不老也.

19) 許浚, 『東醫寶鑑』, 「松脂」, 소나무진 松實 性溫味甘無毒 主風痺 虛羸以氣不足<本草>

許浚, 『東醫寶鑑』, 「海松子」, 잣 性小溫味甘無毒 主骨節風 及風痺 頭眩 潤皮膚 肥五藏 補虛羸少氣<本草>

20) 嵇含, 『南方本草狀』, 海松子 樹與中國松同 但結實絕大形如小栗三角 肥甘香美 亦罇罇間佳果也 出林邑

21) 洪萬選, 『山林經濟』, 「服食」, 海松子(卽栢子) 搗膏作丸 鷄子大 酒調日三下(閑情補)

22) 崔世珍, 『訓蒙字會』, 「木樹」, 松 舍 俗呼油松 又呼잣나무 曰果松 呼子曰 海松子.

23) 徐有榘, 『林園經濟志』, 「海松子」, (名品) 一名 新羅松子.

24) 崔世珍, 『訓蒙字會』, 「木樹」, 栢 楸백 俗呼 楸白

25) 李德懋, 『靑莊館全書』, 「五齧松」, 我東以海松子 爲栢子 蓋誤也. 通雅(方以智著) 肅炳言 五粒 一叢五葉如釵 卽新羅海松子 如小栗三角 其仁香美 粒是蠶誤. 癸辛雜識(周密著) 栢松每穗三齧 而高麗所產 每穗五齧. 新羅國記(撰人俟考) 松樹大連抱有五 粒者形如桃仁而稍小 皮硬味如胡桃. 案中國以海松子 爲油松果松.

1845)26)와 같은 학자는 매우 구체적으로 이를 지적하고 있다.

잣[海松子, 油松, 果松, 五鬣松, 五粒松]을 측백(柏, 汁柏, 側葉子, 柏子仁)으로 잘못 인식하여 나타난 오류를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은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훈몽치훈(訓蒙彙訓)에 백(柏)은 잣[果松]이라고 설명하면서 사투리로 잔(淺)의 격인 소리와 같다고 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잘못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잣을 백자(柏子)로 잘못 알아 '백자(柏子)가 몇 말[斗]인가?'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리고 백(柏, 측백)이 귀신의 벼슬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나라에서는 측백나무가 귀신을 피하기 때문에 송장(體魄)이 불안하다고 여겼다. 그런데 잣나무를 측백나무로 잘못 이해하였기 때문에 잣나무로 관을 사용하지 않으니 이는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 잣나무는 재질이 치밀하고 결이 고와 관을 만드는 재목으로는 상품인데, 이런 거짓된 이름 때문에 잣나무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니 안타깝다'라고 하였다.<sup>27)</sup>

(5) 신선이 먹었다는 잣이 『本草綱目』에서 잘못 인용됨.

유향(劉向, 서력전 77~서력전 6)의 『列仙傳』에 '괴산(槐山)에서 약을 채취하던 악전(偃佺)이 잣을 항상 먹음으로서 몸에 털이 낫는데 눈썹이 수촌(數寸)에 이르렀으며 말과

같이 빨리 달릴 수 있었으며 옷을 입지 않았으며, 당시의 사람들은 잣을 먹어 이삼백 살을 살았다.'<sup>28)</sup>는 기록이 나온다. 이러한 기록은 『本草綱目』을 비롯한 여러 의서에서 그대로 인용되어 잣의 효능을 설명하는데 이용되고 있다.

『本草綱目』에서는 더 나아가 '음식으로 사용하는 잣은 반드시 신라에서 온 것으로 사용해야 한다. 중국에서 나오는 것은 작고 힘이 약해 약으로밖에 쓰지 못한다. 악전(偃佺)은 잣을 매우 좋아했는데 신장의 기운이 좋아져 털이 매우 길어졌으며, 말과 같이 빨리 달릴 수 있었다. 그리고 독자(犢子)는 어렸을 때 흑산(黑山)에 살았는데 잣과 복령 등을 먹고 수백 살까지 살았다. 또한 적송자(赤松子)는 잣, 천문동, 적석지 등을 잘 먹었는데 빠진 치아가 다시 나오고 빠진 머리카락이 다시 나왔는데 끝을 몰랐다.'<sup>29)</sup>라고 적고 있는데, 『本草綱目』에 인용된 적송자(赤松子)는 『列仙傳』의 적수자(赤須子)를 잘못 인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적수자(赤須子)가 잣과 천문동 석지(石脂)를 먹고 빠진 치아가 다시 나오고 털이 다시 나왔다는 『列仙傳』의 기록과 같기 때문이며<sup>30)</sup>, 적송자(赤松子)는 신농(神農)의 우사(雨師)로 곤륜산의 서왕모를 만나러 갔던 사람으로 『列仙傳』의 어디에도 잣을 먹었다는 기록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sup>31)</sup> 왜 이러한 실수를 하였을까? 잣은 음식을 먹

26) 徐有渠, 『林園經濟志』, 「海松子」, (增補山林經濟) 其葉五出 所謂五鬣松也 其毳本豐末煞 子有三稜 蓋海東產也 今處處有之 關東淮陽光盛 俗稱栢子者誤

27) 丁若鏞, 『雅言覺非』, 「柏」, 柏者側柏也 汁柏也 埤雅云 柏有數種 其葉扁而側生者 謂之側柏 本草所稱側葉子 是也 其仁曰柏子仁 此日用易知之物也 海松子油松也 果松也 五鬣松也(亦名五粒松) 吾東輿地志山郡土產 咸載海松子 亦日用易知之物也 今俗忽以果松呼之爲柏 山郡以果松子饋人 輒云柏子幾斗 其訓蒙彙訓 柏曰果松(方言如菱字摺聲) 豈不誤哉 東方朔傳云 柏者鬼之廷 東俗謂栢辟鬼 恐體魄不安 遂以果松板爲栢子板 不用爲棺 尤大愚矣 果松筋理細膩 乃棺材之上品 冒僞名而廢 實用可乎

28) 劉向, 『列仙傳』, 「偃佺」, 偃佺者 槐山採藥父也 好食松實 形體生毛 長數寸兩目 更方能飛行逐走馬 以松子遺堯堯不暇服也 松者簡松也 時人受服者 皆至二三百歲焉 偃佺餌松 體逸眸方 足躡鸞鳳 走超騰驤 遺贈堯門 貽此神方 盡性可辭 中智宜將

29) 李時珍, 『本草綱目』, 「海松子」, 時珍曰 服食家用松子皆海松子 自中國松子肌細力薄 只可入藥耳 按列仙傳云 偃佺好食松實 體毛數寸 走及奔馬 又犢子少在黑山 食松子茯苓 壽數百歲 又赤松子好食松實天門冬石脂 齒落更生 髮落更出 莫知所終 皆指此松子也

30) 劉向, 『列仙傳』, 「赤須子」, 赤須子 豐人也 豐中傳世見之云 秦穆公時 主魚吏也 數道豐界 災害水旱 十不失一 臣下歸向 迎而師之 從受業問 所長好食松實 天門冬 石脂 齒落更生 髮墮再出服 霞絕後遂去吳山下 十餘年 莫知所之 赤須去豐 爰憩吳山 三藥並御 朽貌再鮮 空往師之 而無使延 顧問小智 豈識巨年

지 않아도 배고픔을 느끼지 않게 하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sup>32)</sup> 의미를 부여하기 위하여 더욱 신선이 먹었을 것이라 서술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이와 똑같은 내용이 백자인을 설명하는 『本草綱目』의 문장에 '적송자(赤松子)가 백자인을 먹어 빠진 치아가 다시 나오고 말과 같이 빨리 달렸다.'고 인용하고 있다.<sup>33)</sup> 이는 『列仙傳』의 적수자(赤須子)가 잣을 먹었다는 문장을 잘못 인용한 것으로 보아야한다. 이시진이 '간경(肝經) 기분(氣分)의 약이라 할 수 있는 백자인은 신장(腎臟)을 윤택하게 한다. 차갑지도 않고 건조하지도 않은 백자인의 단맛은 보(補)가 되며 매운 맛은 능히 윤택하게 한다. 맑은 향기는 능히 심장과 신장을 통하게 하며 비위(脾胃)를 도와주기 때문에 대개 선가(仙家)의 자양(滋養)하는 상품(上品)약으로 사용된다.<sup>34)</sup>고 인식한 것을 보면 백자인을 잣과 비슷한 효능이 있다고 생각하여 신선이 먹는다는 내용을 강조하려고 무리하게 인용한 듯하다.

(6) 『抱朴子』에 나오는 진나라 궁녀는 어느 것을 먹었을까?

갈홍(葛洪)의 『抱朴子』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나온다.

한나라 성제(成帝, 서력전 32~서력전 7) 때에 어떤 사냥꾼이 종남산(終南山)에서 옷을 입지 않았으며 온몸에 검은 털이 나 있는 사

람을 보았다. 사냥꾼이 이를 보고 잡고자하였으나 함정을 뛰쳐나가 계곡으로 뛰어갔는데 마치 날라 다니는 듯하여 잡을 수 없었다. 이에 잠복해 있다가 단체로 포위하여 잡으니 여자였다. 연유를 물어보니 대답하기를 '나는 본래 진나라의 궁녀였다. 관동의 도적(항우)이 오매 진왕(秦王, 子嬰)이 항복하고 아방궁이 불에 타게 되었다. 놀라서 산으로 도망갔는데, 먹을 것이 없어 굶어죽게 되었는데 어느 노인이 솔잎(松葉)과 잣(松實)을 먹는 방법을 가르쳐주었다. 처음에는 쓰고 땀었으나 차차 익숙해졌고, 나중에는 배고프거나 갈증이 나지 않고 겨울에도 춥지 않고 여름에는 덥지 않았다.'라고 하였다. 계산을 해보니 이 여자는 진왕 자영(子嬰)의 궁녀로 300년이 되는 것이었다. 데리고 돌아와 음식을 주니 처음에는 음식냄새에 구토를 하였으나 며칠이 지나자 안정되었다. 이와 같이 2년이 지나자 몸에 나 있는 털이 빠지면서 늙고 곧 사망하였다.<sup>35)</sup>

이 문장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아방궁이 항우에 의해 불탄 것이 서력전 207년이므로 여기에서 말한 300년은 무리이고 200년 정도로 보아야하는데, 이것을 감안한다 하여도 매우 이례적인 기록이다. 이와 똑같은 내용이 갈홍(葛洪, 281~341)의 『肘後備急方』에도 나온다. 그런데 『肘後備急方』에서는 여인이 솔잎(松葉)과 측백나무 씨(柏實)를 복용하였다고 나온다.<sup>36)</sup> 저자가 같음에도 불구

31) 劉向, 『列仙傳』, 「赤松子」, 赤松子者 神農時雨師也 服水玉以教神農 能入火自燒 往往至崑崙山上 常止西王母石室中 隨風雨上下 炎帝少女追之 亦得仙俱去 至高辛時 復爲雨師 今之雨師 本是焉 耿耿赤松 飄飄少女 接手翻飛 冷然雙舉 縱身長風 俄翼玄圃 妙達巽坎 作範司雨.

32) 許洪, 『東醫寶鑑』, 「斷穀不飢藥」, 海松子 食之不飢 <本草>

33) 李時珍, 『本草綱目』, 「柏」, 列仙傳云 赤松子食柏實 齒落更生 行及奔馬 諒非虛語也

34) 李時珍, 『本草綱目』, 「柏」, 王好古曰 柏子仁 肝經氣分藥也 又潤腎 古方十精丸用之 時珍曰 柏子仁 性平而不寒不燥 味甘而補 辛而能潤 其氣清香 能透心腎 益脾胃 蓋仙家上品藥也 宜乎滋養之劑用之

35) 葛洪, 『抱朴子內外篇』, 又漢成帝時 獵者於終南山中 見一人無衣服 身生黑毛 獵人見之 欲逐取之 而其人踰坑越谷 有如飛騰 不可逮及 於是 乃密伺候其所在 合圍得之 乃是婦人 問之言 我本是秦之宮人也 聞關東賊至 秦王出降 宮室燒燬 驚走入山 饑無所食垂餓死 有一老翁 教我食松葉松實 當時苦澁 後稍便之 遂使不饑不渴 冬不寒 夏不熱 計此女定是秦王子嬰宮人 至成帝之世 三百許歲 乃將歸以穀食之 初聞穀臭嘔吐 累日乃安 如是二年許 身毛乃脫落 轉老而死 向使不爲人所得 便成僊人矣

36) 葛洪, 『肘後備急方』, 抱朴子云 漢成帝時 獵者於終南山 見一人無衣服 身皆生黑毛 跳坑越澗如飛 乃密伺其所在 合圍取得 乃是一婦人 問之言 我是秦之宮人 關東賊至 秦王出降 驚走入山 飢無所食泊欲餓死 有一老公 教我喫松柏葉實 初時苦澁

하고 먼저 저술한 『抱朴子』에서는 솔잎과 잣을 먹었다고 하였으며, 뒤에 저술한 『肘後備急方』에서는 솔잎과 백자인을 복용하였다고 하여 서로 차이가 난다. 그리고 『本草綱目』에서는 측백나무잎(柏葉)의 효능을 설명하면서 『抱朴子』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데, 여인이 송백엽(松柏葉)을 먹었다고 설명하고 있어 내용이 서로 다르다.<sup>37)</sup>

이들은 솔잎, 측백나무잎, 잣, 백자인의 효능을 설명하면서 더욱 강조하고자 진나라 궁녀의 예를 드는 과정에서 나타난 오류로 보아야 할 것이다.

(7) 論語에 나오는 松栢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군자와 소인의 구분을 세상풍파가 닳친 후에 구분할 수 있다는 비유를 『論語』의 '날씨가 추워진 뒤에야 송백(松栢)이 뒤늦게 시들을 알 수 있다.(子曰 歲寒然後 知松栢之後彫也)'에서 들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송백(松栢)을 보는 관점에 따라 2개의 나무 즉 '소나무와 잣나무', '소나무와 측백나무'로 보

아야하는 지 아니면 1개의 나무 '노송'으로 보아야하는 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여기에 쓴 노송의 의미는 오래되고 큰 소나무의 의미로 사용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출간된 논어번역본 또는 사전류를 살펴보아도 송백(松栢)을 '소나무와 잣나무'로 번역하거나,<sup>38)</sup> 또는 '소나무와 측백나무'로 번역하고 있어,<sup>39)</sup> 이에 대한 해석이 서로 다르다. 이에 송백(松栢)이 사용된 문헌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論語注疏』<sup>40)</sup>에서는 날씨가 추워졌을 때 대부분의 나무가 잎이 떨어지지만 송백(松栢)만이 유일하게 남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 언급한 송백은 구체적으로 소나무, 잣나무, 측백나무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모두 포함한 소나무류의 의미인 상록수로 보았다. 『論語全解』<sup>41)</sup>에서는 송백이 군자와 같이 지조가 있어 함부로 잎을 바꾸지 않는다고 비유를 들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 쓰인 송백도 상록수의 개념이다.

『論語集註大全』<sup>42)</sup>에서 송백의 재질이 단단하기 때문에 추운날씨에도 잎이 지지 않는다

後稍便喫 遂不復飢 冬不寒 夏不熱 此女是秦人 至成帝時 三百餘載也

- 37) 李時珍, 『本草綱目』, 『柏』, 毛女者 秦王宮人 關東賊至 驚走入山 飢無所食 有一老公教喫松柏葉 初時苦澀 久乃相宜 遂不復飢 冬不寒 夏不熱 至漢成帝時 獵者於終南山 見一人無衣服 身生黑毛 跳坑越澗如飛 乃密圍獲之 去秦時二百餘載矣 事出葛洪抱朴子書中
- 38) 成百曉, 『懸吐完譯 論語集註』, 전통문화연구회, 1990  
『새로나온 국어사전』, 민중서관, 2002  
張三植, 『大漢韓辭典』, 教育書館, 1987  
금성출판사사서부, 『뉴에이스 國語辭典』, 금성교과서, 1989  
李熙昇, 『民衆 엡센스 國語辭典』, 民衆書館, 1975  
문세영, 『朝鮮語辭典』, 永昌書館, 1949  
『東亞 漢韓大辭典』, 동아출판사, 1992
- 39) 民衆書館編輯局, 『漢韓大字典』, 民衆書林, 2002  
民衆書館編輯局, 『포켓漢字辭典』, 1975  
고대민족문화연구소 중국어대사전편찬실, 『中韓辭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8
- 40) 何晏 集解 邢昺 疏, 『論語注疏』, 子曰歲寒然後 知松栢之後彫也 注大寒之歲 衆木皆死然後 知松栢不彫傷 平歲則衆木亦有不死者 故湏歲寒而後別之喻 凡人處治世 亦能自脩整 與君子同 在濁世然後 知君子之正不苟容 音義疏 正義曰 此章喻君子也 大寒之歲 衆木皆死然後 知松栢不彫傷 若平歲 則衆木亦有不死者 故湏歲寒而後別之喻 凡人處治世 亦能自脩整 與君子同 在濁世然後 知君子之正不苟容也
- 41) 陳祥道, 『論語全解』, 歲不寒 不足以知松栢 事不難 不足以見君子 莊子曰 受命於道 唯松栢獨也 又曰 天寒既至 霜露既降 然後 知松栢之茂也 禮曰 若松栢之有心 貫四時而不改柯易葉 此所以警君子之操也 老子曰 六親不和有孝慈 國家昏亂有忠臣 傳曰 疾風知勁草 亂世識忠臣 與此同意
- 42) 胡廣, 『論語集註大全』, ○南軒張氏曰 力量之淺深 平時未易見也 惟當利害艱難之際 則可見其所守者矣 人徒見其臨事之能處也 而不知其所守之有素也 松栢之質 堅剛矣 獨於歲寒之時 而後人知其後彫耳 ○胡氏曰 小人在治世 或與君子無異者 猶春夏之交萬物 青葱雖有堅脆之不齊 然未可辨也 及事變之來 小人則隨時變遷 君子則所守不易 非死死禍福 可得而移 亦

고 하였다. 그러면서 '송백만이 홀로 푸르려 변하지 않는다(松栢獨蒼然不變)'고 하였다. 송백을 2개의 나무가 아닌 하나의 나무로 보았기 때문에 독(獨)이란 글자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癸巳論語解』<sup>43)</sup>에서도 '송백의 재질이 단단하다. 날씨가 추워진 뒤에야 홀로 송백이 뒤늦게 시드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면서 독(獨)을 사용하였다. 이는 『莊子注』<sup>44)</sup>에서도 보이는데, '땅으로 명(命)을 받은 것은 오직 송백일 뿐(唯松柏 獨也)이어서 겨울이나 여름에도 푸르다.'라고 설명하면서 유(唯)와 독(獨)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논어에 나오는 송백(松栢)은 '소나무와 잣나무' 또는 '소나무와 측백나무'로 해석하는 것 보다는 재질이 단단하고 항상 푸른 잎을 지닌 상록수인 노송의 의미로 이해하여야 한다.

(8) 『史記』에 나오는 송백(松栢)을 어떻게 볼 것인가

송백의 푸르름과 단단한 재질을 예전부터 흠모하여 여러 가지 비유에 사용하였다. 『史記』의 내용 중에 춘추전국시대 송(宋)의 원왕(元王)은 재위 2년에 신령스런 거북을 얻고 신하 위평(衛平)과 거북을 죽여서 사용할지 아니면 살려 놓아줄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는데, 이때 공자가 이들 듣고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신령한 거북이 길흉은 알지만 그 뼈는 단지 헛되이 말려질 뿐이다. 태양은 덕(德)이 있어 천하에 군림하나 삼족오(三足鳥)에게 치욕을 당하고, 달은 형벌의 상징

으로 해를 보좌하고 있으나 두꺼비에게 먹힌다. 고슴도치도 까치에게 치욕을 당하며, 등사(騰蛇)가 아무리 신령스러워도 용의 뇌를 먹는 지네(螭蛆)에게 꿈쩍 못한다. 대나무는 밖으로 마디(節)가 있으나 속으로는 그저 비어있을 뿐이며, 송백(松栢)은 모든 나무 중 으뜸이지만 문작의 재료로 사용될 뿐이다. 일진(日辰)도 완전하지 않아 고허(孤虛)가 있고, 황금에도 흠이 있으며 백옥에도 티가 있다. 일에는 신속하게 처리할 것과 천천히 할 것도 있다. 사물에는 거추장스러운 것도 있고 의지가 되는 경우도 있다. 그물에는 눈이 촘촘한 것도 있고 성긴 것도 있다. 사람마다 장점이 있으며 동시에 단점도 있다. 하늘도 완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집을 지을 때, 기와를 3장 모자라게 이어 하늘의 완전치 못함에 맞추는 것이다. 천하에는 여러 계급이 있으나 완전하지 않은 채 살아간다.'<sup>45)</sup>

『史記』에 나오는 송백은 출입문의 기둥으로 쓰일 정도로 곧고 큰 나무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노송의 의미로 보는 것이 타당한데, 이시진(李時珍, 1518~1593)은 측백나무를 설명하는 문장에서 『史記』의 문장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송백(松柏)의 나무가 곧고 꺾질이 얇으며 재질이 매끄럽다. 꽃은 가늘며 열매는 둥글며 모양은 작은 방울같다. 서리가 내린 후에 갈라지며 그 가운데 여러 개의 씨앗이 있는데 큰 것은 보리정도 크기이며 향기가 매우 좋다.'<sup>46)</sup>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이시진은 『史記』에 나오는 송백을 측백나무로 인식하였지만, 그 종류가 매우 많았음을 다음

猶重陰沍寒生意憔悴 而松柏獨蒼然不變 ○厚齋馮氏曰 歲寒今之建丑月也 木葉無不凋 而是時松柏獨不凋 則知後於衆木之凋也

43) 張氏, 『癸巳論語解』, 力量之淺深 平時未易見也 惟當利害艱難之際 則可見其所守者矣 人徒見其臨事之能處也 而不知其自守之有素也 松栢之質 堅剛矣 獨於歲寒之時而後 人知其後彫耳

44) 郭象, 『莊子注』, 受命於地 唯松柏獨也 在冬夏青青 夫松柏特稟自然之鍾氣 故能爲衆木之傑耳 非能爲而得之也

45) 司馬遷, 『史記』, 『龜策列傳』, 孔子聞之曰 神龜知吉凶 而骨直空枯 日爲德而君子天下 辱於三足之鳥 月爲刑而相佐 見食于蝦蟆 蝟辱于鵠 騰蛇之神 而殆于卽且 竹外有節 理中直空虛 松栢爲百木長 而守門閭 日辰不全 故有孤虛 黃金有疵 白玉有瑕 事有所疾 亦有所徐 物有所拘 亦有所據 岡有所數 亦有所踰 人有所貴 亦有所不如 何可而適乎 物安可全乎 天尚不全 故世爲屋不成三瓦而陳之 以應之 天下有階物 不全乃生也

46) 李時珍, 『本草綱目』, 『柏』, 時珍曰 史記言 松柏爲百木之長 其樹聳直 其皮薄 其肌膩 其花細瑣 其實成毬 狀如小鈴 霜後四裂 中有數子 大如麥粒 芬香可愛



에 같이 설명하고 있다.

‘송백(松栢)의 종류가 매우 많다. 잎은 측백 나무이면서 나무는 소나무인 것을 회(檜, 노송)라 하고, 잎끝이 단단한 것을 괭(栝, 노송 전나무) 또는 원백(圓栢)이라 하고, 잎은 솔 잎이면서 나무는 측백나무인 것을 종(樅, 전 나무)이라 하고, 송(松) 회(檜) 백(栢)이 반 반씩 있는 것을 회백(檜栢)이라 하고, 아미산(蛾眉山)에 잎이 대나무잎이며 나무는 측백나무인 것을 죽백(竹栢)이라 한다.’<sup>47)</sup>고 분류하고 있다.

일단 『사기』에 나오는 송백을 측백나무를 설명하는데 사용하였지만 상록수이면서 나무의 재질이 끈고 단단함을 강조하려고 한 것이고, 그 종류가 매우 많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송백을 ‘소나무와 잣나무’ 또는 ‘소나무와 측백나무’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나무로 인식하였고, 소나무 잣나무 측백나무 등의 상록수를 모두 포함하는 대표적인 의미로 송백을 사용하였음을 의미한다.

(9) 의서에서 바라본 송백(松栢)은 하나의 식물이다.

의서에 나오는 송백(松栢)을 1개의 나무인 노송의 의미로 보아야하는 경우와 2가지의 나무 즉 ‘소나무와 측백나무’ 또는 ‘소나무와 잣나무’로 볼 수가 있는데, 약재를 사용해야하는 입장에서는 매우 혼란스러울 수가 있다. 이에 의서에 나오는 송백을 찾아 그 의미를 각각

살펴보기로 한다.

『醫壘元戎』<sup>48)</sup>에서 ‘黃松栢(一兩)’을 사용하는 처방이 나온다. 만약 송백을 소나무와 측백나무 2가지의 식물로 본다면 일량(一兩) 앞에 각(各)을 사용하여 구분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문맥상 여러 약재를 나열하고 있기 때문에 황송백(黃松栢)은 1개의 약재로 보아야 한다. 『仁齋直指』<sup>49)</sup>에서는 여러 약재를 나열하는 가운데 ‘黃松栢節(黃松栢節)’이라 하였다. 문맥상 송백(松栢)을 송(松)과 백(栢)으로 2개의 약재로 보기에 는 무리가 되고 하나의 약재인 황송백(黃松栢)의 마디로 보아야 한다. 『普濟方』에서도 ‘松栢枝(四兩)’이라 하였는데<sup>50)</sup> 이도 송백(松栢)의 가지로 보아야 하며, ‘松栢葉(二七枝)’은 송백의 잎으로 보아야 한다.<sup>51)</sup>

하지만 의서에 나오는 송백(松栢)을 노송으로만 보기에 무리가 있을 수 있으나, 송(松)과 백(栢)으로 보기에 는 더욱 무리가 된다.

(10) 송백(松栢)이 잣나무와 측백나무를 의미하는 경우

대부분의 송백(松栢)이 노송을 의미하지만 문헌에 따라 다른 뜻을 지닌 것이 있다. 이것은 전체 문맥을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다. 『備急千金要方』에 복령고방(茯苓膏方)을 만드는 방법으로 복령 송진 잣(松子仁) 백자인(栢子仁) 4가지 약재를 사용하는데, 송백인(松栢仁)을 뿔은 다음 채로 정선한다고<sup>52)</sup> 하였다. 여기

47) 李時珍, 『本草綱目』, 「栢」, 栢葉松身者 檜也 其葉尖硬 亦謂之栝 今人名圓栢 以別側栢 松葉栢身者 樅也 松檜栢半者 檜栢也 蛾眉山中一種 竹葉栢身者 謂之竹栢

48) 王好古, 『醫壘元戎』, 貼藥 黃松栢(一兩) 乳香(研半兩) 沒藥(三錢半) 右細末 用麵油調勻 攤在絳帛上 貼傷處 用綿竹篋夾定封 須要子細對得骨正 更用紙封

49) 楊士瀛, 『仁齋直指』, 烏蛇圓治風寒脚氣隱痛痺痺 烏蛇(四兩酒浸取肉焙) 虎骨(醋浸洗淨酒炙二兩) 石斛(令作末) 黃松柏節(酒浸研) 巴戟(去心) 茯苓(酒浸焙) 官桂 防風 獨活 續斷 五加皮 薏苡仁 當歸 木香 川芎(各半兩) 乳香 生乾薑(各二分) 右末 酒麵稀糊圓桐子大 每服四十圓 木瓜橘皮煎湯下

50) 朱權, 『普濟方』, 摩頂細辛膏 治風旋頭 細辛(三兩) 當歸(三兩) 桂心(三兩) 天雄(二兩去皮臍生用) 白芷(一兩半) 芎藭(一兩半) 乾薑(一兩) 烏頭(二兩去皮臍) 松栢枝(四兩) 生地黄(五斤取自然汁) 硃砂(一兩細研) 猪肪(三斤) 右擗篩如麻豆大 以生地黄汁浸一宿 先將猪肪銷去筋膜 下火停冷下地黄汁并浸者 藥同煎合白芷黃色去滓 入硃砂末 用柳木篋不住手攪令凝收於瓷合內用頭頂上甚效

51) 朱權, 『普濟方』, 乳香丸 治小兒百日內 患傷寒壯熱 速宜療之 鐸鐵一斤燒令通赤 以水二斗淬之 如此三七遍煎取二停更入柳葉七片 淬而又用 油麻(二十一粒) 松栢葉(二七枝) 牙硝 乳香(各一分) 金箔 白芥子(二七粒) 右並搗爲末 蜜丸如彈子大 以青物裹一丸 如燒香法薰兒雙足微有汗出便瘥

에서 사용한 송백(松栢)은 송자인(松子仁, 잣)과 백자인(栢子仁)을 합쳐서 송백인(松栢仁)이라 표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문맥상 『備急千金要方』에 사용된 송백은 잣나무와 측백나무로 보아야 한다.

이와 비슷한 경우를 손일규(孫一奎)의 『赤水元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주안소환단(駐顔小還丹)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면서, 잣[松子仁]과 백자인 등의 약재를 열거하였다. 그런 다음 약효가 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송백(松栢)은 추위를 잘 이길 수 있어 모두 신기(神氣)를 기를 수 있는데 범상한 초목(草木)은 비할 바가 못 된다. 따라서 동안(童顔)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sup>53)</sup> 즉 '松栢耐歲寒 皆足以養神氣'에서 송백(松栢)을 잣과 백자인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에 모두라는 뜻의 개(皆)를 문장에 넣은 것이다. 만약 송백을 하나의 나무로 보았다면 결코 개(皆)를 사용하여 문장을 쓰지 않기 때문이다.

송백이 잣나무와 측백나무로 사용된 경우는 극히 일부이고 문장을 간략하게 서술하는 과정에서 잣(松子仁)과 백자인(栢子仁)을 합쳐서 송백(松栢)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11) 송백(松栢)이 소나무와 측백나무를 의미하는 경우

송백(松栢)이 송(松, 소나무)과 백(栢, 측백나무)을 의미하는 경우가 있다. 『普濟方』에 신선이 송백엽(松柏葉)을 먹는 방법을 설명하면서 '새로 나온 솔잎[松葉] 중 3~4촌 되는 것과 꽃술을 같이 채취하여 음건하여 분말을

만들고, 깊은 골짜기에 사는 측백나무에서 새로 나온 잎 가운데 3~2촌 되는 잎[栢葉]을 채취하여 음건하여 분말로 만든 다음 꿀로 환을 만든다.'<sup>54)</sup>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普濟方』에서 언급한 송백엽(松栢葉)은 솔잎과 측백나무잎으로 보아야 한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普濟方』의 '松栢葉(二七枝)'을 하나의 식물인 송백의 잎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과 상충될 수 있으나 앞뒤 문맥을 이해하면 된다. 왜 같은책이지만 이러한 오해의 소지를 남겨두었을까? 『普濟方』이 다양한 의서를 집대성하면서 만든 저서였음을 감안하면 각기 다른 의미로 사용된 송백(松栢)을 인용함으로써 잘못 번역할 여지를 남겨두었다고 본다.

『赤水元珠』에서는 여러 약재를 나열하면서 '松栢葉 各二兩'이라고 나열하였다.<sup>55)</sup> 여기에서 사용된 송백(松栢)은 '각각 2량씩'이라 표현한 것을 미루어 보면 솔잎[松葉]과 측백나무 잎[栢葉]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의서에서는 사용된 송백(松栢)은 노송의 의미인 소나무이지만, 잣[松子仁]과 측백나무 씨[栢子仁]를 의미하는 송백(松栢), 솔잎[松葉]과 측백나무 잎[栢葉]을 의미하는 송백(松栢)으로도 사용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 특정 단어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문장 전체를 이해한다면 오역을 방지할 수 있다.

### Ⅲ. 결 론

이상과 같은 문헌조사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52) 孫思邈, 『備急千金要方』, 茯苓膏方 茯苓 松脂 松子仁 栢子仁 右四味 皆依法鍊之 松栢仁不鍊搗篩 白蜜二斗四升 內銅器中湯上微火煎 一日一夕次第下藥 攪令相得微火煎七日七夜上 丸如小棗 每服七丸日三 欲絕穀 頓服取飽 即得輕身 明目不老

53) 孫一奎, 『赤水元珠』, 駐顔小還丹 諸虛百損 男子婦人久服 返老還童 功效殊常眞仙品也 鹿角霜 龜板霜 虎胥骨 天門冬 熟地黃 人參 松子仁 栢子仁 紫河車一具. 按此方 用龜鹿虎者 以其多壽也 能壯人之筋骨 用天冬地黃人參者 象法三才 以補人之精髓 用紫河車 以補人之元神 松栢耐歲寒 皆足以養神氣 非泛常草木可比 故有駐顔延筭之功

54) 朱橚, 『普濟方』, 神仙服松柏葉 當以三月四月 採新生松葉 可長三四寸許 并花葉取除乾 細搗爲末 其栢葉可取深巖谷中 採當年新生 可長三二寸者 陰乾細搗爲末 用白蜜丸如小豆大 當以正月十五日 日未出時 燒香向東 持藥八十一丸 (下略)

55) 孫一奎, 『赤水元珠』, 陰煉秋石 法置缸三四口於靜處 每缸貯龍虎二水五分 加井水五分 明礬二兩 白朮二兩 松栢葉各二兩 柳棍五根 一扎順攪千餘轉 蓋定待澄清 傾去清水

1. 송자(松子), 송자인(松子仁), 송실(松實)은 솔방울이 아니라 잣(海松子)을 의미한다.
2. 栢子是 측백나무의 열매[栢子仁]이지 잣이 아니다.
3. 『본초강목』에서 잣을 설명하면서 인용된 『列仙傳』의 내용은 일부 와전된 것이다.
4. 진나라 궁녀가 몇백년을 살았다는 기록에 대하여 갈홍(葛洪)은 『抱朴子』에서는 솔잎 잣을, 『肘後備急方』에서는 솔잎과 백자인을 복용하였다고 달리 서술하였다. 『본초강목』에서는 『抱朴子』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솔잎과 측백나무잎을 복용하였다고 달리 서술하는 오류를 범한다.
5. 『논어』와 『史記』에 나오는 송백(松栢)은 '소나무와 잣나무' 또는 '소나무와 측백나무'로 해석하는 것 보다는 재질이 단단하고 항상 푸른 잎을 지닌 상록수인 노송의 의미로 보아야 한다.
6. 의서에 나오는 송백(松栢)을 간혹 잣나무와 측백나무, 또는 소나무와 측백나무로 보기도 하나 대부분 하나의 식물인 노송의 의미로 보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

#### IV. 참고문헌

1. 葛洪, 『肘後備急方』
2. 葛洪, 『抱朴子內外篇』
3. 郭象, 『莊子注』
4. 唐慎微, 『證類本草』
5. 繆希雍, 『神農本草經疏』
6. 司馬遷, 『史記』
7. 徐有桀, 『林園經濟志』
8. 孫思邈, 『備急千金要方』
9. 孫一奎, 『赤水元珠』
10. 鄂爾泰, 『欽定授時通考』
11. 楊士瀛, 『仁齋直指』
12. 王燾, 『外臺秘要』
13. 王好古, 『醫壘元戎』
14. 危亦林, 『世醫得效方』
15. 劉向, 『列仙傳』
16. 李德懋, 『靑莊館全書』
17. 李時珍, 『本草綱目』
18. 張栻, 『癸巳論語解』
19. 丁若鏞, 『雅言覺非』
20. 朱橚, 『普濟方』
21. 陳祥道, 『論語全解』
22. 崔世珍, 『訓蒙字會』
23. 何晏 集解 邢昺 疏, 『論語注疏』
24. 許浚, 『東醫寶鑑』
25. 胡廣, 『論語集註大全』
26. 洪萬選, 『山林經濟』
27. 嵇含, 『南方本草狀』
28. 成百曉, 『懸吐完譯 論語集註』, 전통문화연구회, 1990
29. 고대민족문화연구소 중국어대사전편찬실, 『中韓辭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8
30. 금성출판사사서부, 『뉴에이스 國語辭典』, 금성교과서, 1989
31. 『東亞 漢韓大辭典』, 동아출판사, 1992
32. 문세영, 『朝鮮語辭典』, 永昌書館, 1949
33. 民衆書館編輯局, 『포켓漢字辭典』, 1975
34. 民衆書館編輯局, 『漢韓大字典』, 民衆書林, 2002
35. 『새로나온 국어사전』, 민중서관, 2002
36. 李熙昇, 『民衆 옛센스 國語辭典』, 民衆書館, 1975
37. 張三植, 『大漢韓辭典』, 教育書館, 1987